

01 교회소식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주님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본다.

02 생명의 말씀

종려주일 특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본다.

04 간증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섬김을 달아간 행복하다는 김학철 장로와 손수건 기도로 딸의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받은 일본 최미령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29호 2014년 4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가슴 깊이 새겨지는 사랑

이 길을 걸어가나이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조차 들리지 않는데
왜 이리 저 여인들의 울음소리는
내 귓가에 생생히 전달이 되는 것인지

지금의 슬픔은 곧 영광이 되리니
저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그 눈물을 아버지께서 갚아 주리니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그 슬픔이

나를 위해 울부짖는 저 괴로움이
오히려 내게는 가슴 깊이 새겨지는 사랑이구나.

내려치는 채찍도,
팔이 있음을 느끼질 못할 만큼의 무거운 십자가도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증거가 되는구나.

아버지, 내 아버지, 능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미안해하지 마옵시고 슬퍼하지 마옵소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가오니
영광 중의 영광이 되나이다.



베스트셀러 이재록 목사 신간 『고백』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심한 채찍질에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린 고백

“십자가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이 혹독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진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여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7년간 병고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전도한 둘째 누님 이정순 권사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치료는 물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 밝히 알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는 물론 '요한복음 강해', '창세기 강해'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증거하고 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해외성회를 인도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을 주제로 설교한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목사)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중보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4월 20일부터 50일간 전도대회를 진행한다. 가족과 일가친척을 전도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신행철 장로(남조장연합회 회장)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도를 통해 받은 축복을 전했다. “전도를 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위장장애, 대인기피증,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가족,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지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본이 되려고 힘쓰니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해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니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해졌으며 자녀들 장래와 사업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가호호 전도, 노방전도를 통해 교회 소식지 '만민뉴스'와 함께 따뜻한 커피와 부침개 등 먹거리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가친척을 방문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과 함께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도대회를 맞아 전 세계 1만여 지교회와 협력교회도 가정 복음화를 이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친구의 전도로 농아인 저도 구원받아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저는 농아인으로 늘 소외감을 느꼈고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니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동성연애를 하는 등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전도사)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동성연애는 물론, 술을 끊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혈기 많은 제가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저를 따라 치앙라이만민교회에 등록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 아홉 명이 치앙라이만민교회 성도가 됐지요.



랏트리 세판 성도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평상시 두통이 심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말끔히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틈날 때마다 만민뉴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간증책자, 권능 CD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한껏 채워 주시지요. 요즘은 어찌하든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특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9~10)

1.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존귀와 위엄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요. 짐승과 닮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라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타락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며,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무실 곳이 없어 들에서 누우시며 추위를 견디고 비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대로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거하시며 가난하고 헐벗은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예수님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며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좇았습니다(마 4:17-25).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시작으로(요 2장), 유대와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날 때부터 소경 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힐책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소경이었던 자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당히 고백합니다(요 9:32-33). 이렇게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요.

3.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본 회당장이 분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 나라” 합니다(눅 13:14). 즉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레 23:3)는 말씀을 오해해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회당장 자신의 자녀가 귀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가 안식일에 치료받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만 급급했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나와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깨우쳐 주셨습니다(눅 13:15-16). 즉 안식일에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먹이고 살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심령을 해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해치 못하며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온 무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지요(눅 13:17).

4.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서는 베다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 걸어 나오지요(요 11:41-44). 실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자신들의 메시아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 애통하시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면 지금부터 2천여 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심정을 느껴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슌 9:9).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을 준비하러 온 많은 유대인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자기 겂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막 11:9-10).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체포당하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



부활절 공연 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겂옷이나 나뭇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환호하는 모습을 재현했다(2004년 부활절 칸타타 중에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수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력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북한선교를 이뤄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완료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이름 사이에는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옳지만 부활 사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주님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뽀뽀 씻겨 주시지요.(요 13:3-11)

하나님 아들로써 피조물의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씻기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같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욱 섬기고 희생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6.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시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 예언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찢어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이 찢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막 14:21).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을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막 14:30). 이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하지만 후일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 기다리셨구나! 하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요 14:1), 천국 소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없을지라도 성령으로는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

7.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겐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통을 이기기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 앞에 닥쳐온 고난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셔야 하는 고통과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면당하셔야 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고뇌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좇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죄악을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8.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침내 골고다 처형장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피조물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므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달려 죽어야 하는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매달려 있어야 하므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무려 세 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계셨는데,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느끼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하늘도 빛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막 15:34).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사랑을 깨우쳐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무수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지요. 또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다 헐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이루게 됐으며,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4.13-4.19

4 April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1차 영혼육 3-7
- 생명의 씨 4
- 마음발을 개간하자 1-4
- 창세기 강해 96-100
- 천국 42-46 • 사랑장 4-8
- 주는 그리스도 1-2 (중려주일)
- 우리 삶의 등불 3

GCN TV 설교

- 성경 속에 사는 교회 3(이수진 목사)
- 선을 달아기는 방법 10(이영 목사)
- 영의세계 14(이희선 목사)
- 생물 6 / 해-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신동호 목사)
- MIS강의 6 / 선한 지혜(정규영 목사)
- 하나(조소영 교육전도사)
- 온전한 신뢰(김자애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3 • 옛날 옛적에 2
- 만민지킴이2 • 모두 드려요 3
- 홍가운 소리1 • 찬양드려요 2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7-10
- 항기 21-22 • English 11
- 찬양과 경배(3) 80-83

부활절 프로그램

- 2011 부활절공연-주님 가신길
- 2012 부활절공연-사랑의말씀(이수진)
- 2013 부활절공연-주는 그리스도
- GCN 특선영화-나사렛 예수 3부

1577-207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연합대성회 1 회상 4-5
- Spring GCN 방송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오래전 왼쪽 어깨 인대수술을 하여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릴 수 없었습니다. 1993년 5월, 아내 이미경 권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이 어깨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본을 보이며 굿은일에도 솔선수범하니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됐지요.

1995년 11월 15일부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전기, 시설, 방화 관련된 일 등 30여 년의 경력으로 나름 열심히 일했지요. 그런데 2010년 3월, 손바닥이 닳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왼손 약지가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방아쇠 수지’였지요. 의사 선생님은 약지 힘줄을 조절하는 고리에 이상이 생겨 수술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할 것을 찾았습니다. 아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의견에 맞지 않을 때 겉으로는 상대와 화평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일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마음을



가족과 함께한 김학철 장로 (3대대 32교구, 59세)

찢으며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라고 손바닥에 적고 당회장과 약수를 했지요. 이를 후 왼손 약지가 자유롭게 펴지고 굽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손가락 힘도 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들으신 당회장님께서서는 저의 의와 틀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며 보잘 것 없는 저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셨지요. 그때 저는 몸돌 바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를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목자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마음 중심에서 섬기고자 했고, 상대의 장점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201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딤후 4:5)는 말씀에 의지

해 설교 말씀과 성경을 양식 삼고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013년 12월에는 영의 마음을 이뤘다는 축복을 받았지요. 이후로 직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요즘 조회 시간에 제가 깨우친 내용을 시설관리국 직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환경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눈에 보기에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직원들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바로 점검해 드릴게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지요.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성전을 돌아보는 부서 특성상 불시에 발생하는 업무도 있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며 늦은 밤까지 일할 때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자체가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수건 기도로 딸의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받았어요”

최미령 성도 (일본 동경만민교회, 32세)

작년 9월, 2개월 된 사랑하는 딸 시영이가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게 됐지요.

평소 어머니는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전해 주시며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자 비로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세상 죄로 물들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 주실 수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영혼이 세상 죄로 병들었을 때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다만민교회(담임 유승길 목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일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저는 동경에서 전차를 타고 5시간이나 걸려 이다에 도착했습니다. 시영이는 평소에 우유도 잘 먹지 못하고 칭얼거렸는데 감사하게도 이날은 순한 양 같았지요. 이다만민교회에 가까워올수록 마

음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저는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한 일 등을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자복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불을 받아 온몸이 뜨거웠지요. 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시영이가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심실중격 결손 두 군데 중 한 곳은 막혀있고, 한 곳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영이는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489-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